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0호 [루게 제23447호] 주체100 (2011)년 5월 10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대학생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송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새 세대들에게 만복을 안겨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리영호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김경희동지, 강석주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진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태중수동지, 김경해동지, 문경덕동지, 주규창동지, 우동숙동지, 리명수동지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경욱동지, 김원홍동지, 김영철동지,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동지가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소조원들은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시와 노래 《어버이수령님 친필현판앞에서》, 회상기선동 《한흠의 미시가 루》, 녀성창작 《전선천리 야전차 달리네》, 짧은극 《5점》, 가야금병창 《비날론 삼천리》, 녀성독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제담 《우리의 계절》, 남성창작이 이야기 《강성대국래일이 우릴 부른다》, 시와 합창 《남산의 푸른 소나무》, 《조선청년행진곡》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전투적기상이 나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럽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자기들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영원히 당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고자말 대학생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공연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60여년동안 우리 당의 믿음직한 민족간부양성기지로, 후대교육을 위한 원종장으로 강화

발전되여온 김형직사범대학의 자랑찬 역사를 잘 보여주었다. 씩씩하고 생기발랄한 대학생들의 열정에 넘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는 우리 대학생들의 고상하고 건전한 사상정신세계와 도덕품모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으며 주제교육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우리 대학생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당의 후비대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자랑스럽게 펼쳐보인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리치는 환호성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대학생예술소조원들의 공연성공을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형직사범대학 학생들이 선군시대에 창조된 군인문화

를 적극 따라배워 자기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감사 를 주시였다. 특히 제담 《우리의 계절》을 비롯한 작품들은 청년대학생들은 물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의의가 대단히 큰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형직사범대학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몸소 대학의 현판을 직접 써주신 뜻깊은 대학이라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지원》의 사상을 대를 이어 꽃피우기 위한 교수교양과 학습,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새 세대 청년대학생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투장마다에서 큰 몫을 맡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자랑스러운 청년대학생대군이 민족번영의 태일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있기에 주체혁명위업완성은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대학생들을 지역체를 갖춘 유능한 인재로, 나라의 역군으로 튼튼히 키우는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나라의 흥발성쇠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라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수교양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연에 출연한 김형직사범대학 학생들은 강성대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께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역세게 준비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 주체농법의 연구대로 영농전투를 힘있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은 어디까지나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진실하고 참신하게 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있다. 얼마전 시당위원회에서는 사동구역 리현남내전문화농장에서 당면한 모내기와 남새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전선동활동과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시주변구역, 군당위원회의 선전선동부인 일꾼들과 협동농장당일꾼들, 선동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경쟁도표를 통한 선동, 노래를 통한 선동, 버모기시험장과 남새비배관

중산군 풍정협동농장 일꾼들과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이 앞선 수직과재배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수직과재배방법이 우리의 현실에 맞게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됨으로써 논벼생육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간석지는 을 비롯한 여러 부류의 땅에서도 작은 로력으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 물질기술적대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의 농업이 제일 좋은 농업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찍이 이 농장에 찾아오시여 농사실태를 료해하시고 친리해안의 예지로 모내기를 하지 않고 벼농사를 할수 있는 수

### 선전선동력량을 들끓는 포전에 집중

평양시당위원회에서 대교조시기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로력혁신자로 키움으로써 농촌선동원의 본보기로 온 나라에 이름을 떨친 리신자영용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실정에 맞는 선전선동사업을 창신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들은 언제나 분조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모두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 된 림장에서 당면한 영농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려 가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현재 이들이 선동원으로 일하는 분조들이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농장적으로 제일 앞장서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시와 구역, 군당위원회 일꾼들은 농업부문 일꾼들과 선동원들속에 자주 들어가 그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사업을 신속하게 벌려도록 지도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구역, 군당위원회의 부장이상 일꾼들과 농업부문의 초급당일꾼들이 선동원들을 한명씩 맡아 모범선동원으로 키우

### 앞선 수직과재배방법과 기술 개발

적과재배를 시험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기 위해 로력영웅인 전 관리위원장과 농장일꾼들, 기술자들은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고 오랜 기간 피라게 노력하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속성싹피우기와 씨뿌리기방법, 씨뿌리는기계 등을 창안 도입함으로써 성공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리재일, 한철동무를 비롯한 농장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당이 걸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치말씀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들은 김성남, 배승렬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과 함께 농장에서 이 재배방법과

### 모든 힘을 농촌에 총동원하여 평안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일곡생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당이 제시한 일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여야 합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올해에 일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어쥐고 모든 시, 군들에서 당면한 영농작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기에 질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대관군에서는 여러 농장의 작업반, 분조들에 일꾼들을 파견하여 논갈이와 버모기트리를 비롯한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려도록 떠밀어주는 한편 강냉이과종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 성과를 거두어왔다. 의주군에서는 군안의 모든 모내기에 100% 수리정비하여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박천군 일꾼들이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버모기트리와 강냉이영양단지모비배관리를 앞세우는 한편 감자과종면적을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이고 알고감자농사에 힘을 넣고있다. 선천군에서는 올해에 거의 모든 밭에 강냉이영양단지모



농사를 책임진 주인다운 일본새로 버랭상모관리를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순안구역 안흥농장에서-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북남사이 조 성된 엄청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 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 하기 위해서는 해내외의 온 겨레가 굳 게 단합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누 구나 리념이나 주의주장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통성과 민족 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한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것은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조국통일운동은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물리치는 치열한 투쟁을 동반한다. 미국은 대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기도로부터 남조선 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민족분열과 동족대결을 심화시키기 위해 책동해왔다. 남조선의 역대 통치자들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조국통 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였다. 간교한 조국통일 운동사는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 이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한가 하는것 을 잘 보여주고있다.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해 외의 온 겨레가 통일애국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의 단 결은 통일위업실현의 본성적요구이며 결정적담보이다.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것으로서 본질상 민족대단결위업이다. 온 민족이 단결 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다. 조국 통일위업실현의 강력한 추동력은 전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치는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투 쟁할 때만이 분열주의세력의 책동 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 을 성취할수 있다.

온 겨레가 대단결을 이룩한다면 민 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워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공동 의 리익은 조국통일이다. 오랜 세월을 걸치는 민족분열로 하여 북과 남에 사 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일련의 차이가 생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 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 에 살건 다같이 하나의 피를받은 이 온 같은 민족이다. 또한 온 겨레의 가슴 속에는 통일된 조국에서 민족의 존엄 을 높이 떨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간절한 념원이 간직되어있다. 단일민 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과 조국통일 이라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면 단 어러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로 단결할수 있다.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 서고있는 오늘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리해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보 다 앞세우서는 안된다.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동의 리익 을 앞세우고 하나로 굳게 뭉칠 때 조 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 게 될것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것은 북 과 남의 화해와 단합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중 요하게 제기되고있다.

북남관계는 지금 최악의 파국상태 에 처하여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 와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화해와 협력 사업도 중단되었다. 남조선에서는 우 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모략소문 과 전쟁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 으며 그로 하여 북남관계는 더욱더 악 화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의 필연적결과이다. 민족의 리익을 외면하 고 겨레의 통일지향을 거스를 때 북남관 계는 파국을 면할수 없다.

북남관계의 악화는 우리 겨레 누구 에게나 백해무익하다. 북남관계로 이야 기가 대결과 충돌의 악순환으로 이어 지고 그것이 나아가서 이 땅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북남관계가 악 화되면 피해를 볼것은 우리 민족이고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이다. 분열 의 비극이 겨레에게 주는 고통이 날로 커가는데도 남조선당국이 당치 않은 구실과 조건들을 내세우며 민족의 화 해와 단합을 거부해나서는것은 반민족 적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자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이 필수적이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은 온 겨레의 한결같 은 요구이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자면 당 리당략과 주의주장을 뛰어넘어 민족공 동의 리익을 앞세워야 한다. 계급 이나 당파의 리익이 민족공동의 리익 보다 클수 없으며 사상과 제도의 차이 가 결코 민족대단결의 장애로 될수 없다. 민족이 있고사자 계급이 있고 민 족공동의 리익이 실현되어야 계급과 당파의 리익도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협소한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의 울타리 를 대범하게 뛰어넘어 민족공동의 리 익을 앞세워야 한다.

북과 남이 단합과 통일을 지향하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 극 노력한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 일위업실현의 길에는 밝은 전망이 펼 쳐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면서 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중지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도움이 되 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조선된 정세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불러오는 애국심을 안고 민족 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 고있다.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 우면서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 결하여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이룩하 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은 정 철

# 남녘땅에 굶어치는 위인칭송의 열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애와 신뢰의 정이 날이 갈수록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민족최 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 으며 남조선의 인터넷홈페이지 들에 《김일성주석적경거》, 《김일성주석의 이념위천사상과 그 계승》, 《조선정치와 북》, 《내가 본 강성대국》 등의 제목으로 된 절세의 위인들을 칭송하고 우리 당의 선군정치 를 지지칭찬하는 수많은 글들이 게재되었다. 그 글들을 보 면서 남조선인민들은 리념보다 민족을 첫차리에 놓으시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사령관과 그의 뜻을 받 들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뉘우치는 흥모습을 금치 못하였다.

부산의 한 주민은 《김일성주석님 과 김일성군장위원장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와 경모심, 그것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탁월한 사상가로서, 세련된 명도자 이시며 명랄무쌍한 군사전략가 이시며 인간사양의 화신이신 그분들의 위대성에 진심으로 매혹되고 감복하면서 우리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한 주민은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 《남에게 바치는 시》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수백명의 카페 회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수백명의 자작시를 골라 게재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2007년 8월부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과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에 400여 편이나 올렸다고 한다.

김철당국은 그의 의로운 소행 을 결코 용서 못하였다. 그러나 이 주민은 재판정에서 《내가 느 낌바를 그대로 표현했을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죄로 되는가. 나 에게는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웨쳐 피소광들을 진멸케 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 남북공동 선언실천때, 범민련 남측 본부, 《한총련》, 진보련대 등 진보적인 운동단체성원들을 위주로 하여 진행했던 우리 공 화국을 찬양하는 인터넷활동에 각계각층 군중이 앞을 다투 어 참가하여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 상과 업적에 대한 찬란의 정을 꾸민다는 사실은 그분들의 위대성에 진심으로 매혹되고 감복하면서 우리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진행되는 구원활동

사랑의 위문금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송고 한 뜻을 받들고 총련조직들과 동포들이 단합된 힘으로 대지 진과 해외피해를 입은 동포들 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벌이고있다.

남송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피해자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위 문금을 전달하면서 조국과 총 련조직에 의거하여 강한 의지 를 안고 하루빨리 생활을 안정 시키기까지 격려했다.

제일조선청년동맹(조청) 중앙상임위원회 일꾼들은 총련 중앙근대책위원회 미야기현 본부에서 활동하는 조청일꾼들 과 성원들에게 굳게 단결하여 동포구원사업을 힘있게 벌일것 을 호소하였다.

또한 미야기, 후쿠시마, 아 오모리, 이와테, 아가다, 야 마가타현의 상품회사장들, 총련중앙근대책위원회 미야

기현본부 일꾼들은 미야기현 상공도 사무실에서 긴급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상품단 계가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해나가는데서 역 할을 다해나가달라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들은 피해지역 동포상공인 들에 대한 구원활동을 성의껏 벌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조 청오늘의 난국을 함께 타개해나 가자고 강조하였다.

총련 아마구찌현 우베오노다 지부는 《피해동포들을 지원하 자》라는 주제로 지부판과 단 계, 사업계획을 이 및 부책임들 의 긴급모임을 가지고 지원 물자들을 마련하여 도호주조선초 중급학교에 전달하였다.

거기온 동포애의 정으로 일 판된 구원활동은 일본 각지에 서 각이한 형태를 띠고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에 맨 먼저 달려나가자!》 는 구호를 들고 총련 미야기현 구원대는 피해지역 동포들을 찾아가 복구사업에서 큰 역할 을 하고있다.

도쿄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 은 동포들의 생활현황과 학교 들의 피해실태, 일본 각지와 해외에서의 동포들의 구원활동, 피해지역에서의 졸업식과 입학식을 비롯하여 지원방식이 후 동포사회에서 벌어진 일들 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글들을 《조선신보》에 실는 등 동포지 원을 호소하는 활동을 벌였다.

동포추구수신들도 피해동포들 을 위해 구원금을 마련하였다.

한편 제일조선청년동맹상공회 의 구지높은 력사를 돌이켜보 는 총련일꾼들과 제일동포들의 열골마다에는 추위의 빛이 력 령하였다.

해방후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따라 애 국의 한걸음 나아가길 확고한 결 의됨에 투쟁에 떨쳐나선 제일 동포들은 자기의 진정한 리 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출판보 도물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그러하여 1945년 10월 《조선신보》의 전신인 《민중 신문》이 창간되었다. 창간자 수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 국건설소식과 함께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국인민들 이 새 조국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을 제때에 제일동 포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들의 민족적근기와 자부심을 더욱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련은 자체의 교양방과 강연선정방을 실행에 맞게 잘 조직운영하고 《조선신보》를 비롯한 출판보도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대중적 인 문화예술활동과 체육활동 을 널리 벌여야 합니다.》

지난 3월 14일 총련은 기 판지 《조선신보》의 1년 5 천호 발행을 뜻깊게 기념하였 다. 이날 주제적폐출판보도 물로 영예받은 《조선신보》의 구지높은 력사를 돌이켜보 는 총련일꾼들과 제일동포들의 열골마다에는 추위의 빛이 력 령하였다.

해방후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따라 애 국의 한걸음 나아가길 확고한 결 의됨에 투쟁에 떨쳐나선 제일 동포들은 자기의 진정한 리 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출판보 도물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그러하여 1945년 10월 《조선신보》의 전신인 《민중 신문》이 창간되었다. 창간자 수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 국건설소식과 함께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국인민들 이 새 조국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을 제때에 제일동 포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들의 민족적근기와 자부심을 더욱

【조선중앙통신】

##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선도자의 영예드높이

북돋아주고 민족권리옹호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 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을 때에 는 그를 열렬히 추켜하고 공화 국의 기치를 사수하기 위한 투 쟁으로 제일동포들을 불러일으 켜고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에는 전쟁승리를 위한 조국인 민들의 영웅적투쟁소식들을 제 때에 소개선전함으로써 동포들 이 반미항쟁에 한사람같이 떨 쳐나서게 하였다. 그 믿음, 그 사랑속에 《조선신보》는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총 련일꾼들과 동포들이 자기 수행, 자기 명도자에 대한 열렬한 총정

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을 절절히 옹호하며 총련조직을 굳건히 키 기도록 고무추동하는 사상적무 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정명 《조선신보》가 걸어온 지난 60여년의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극 진한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애 국애족의 력사를 수놓아온 영광 스테로운 로정이며 제일조선인운 동의 승리적전투를 떠날어는 자 랑스러운 력사이다. 조선신보사 의 전체 기자, 편집원들은 앞으 로도 애국애족운동의 영예로운 선도자, 동포들의 리익의 참다 는 대변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힘있게 벌어지는 대중운동

올해 3월초부터 총련이 벌 리고있는 90일운동이 지금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90일 운동은 번영하는 어머니조국과 더불어 제일조선인민들의 찬란 한 미래와 동포들의 행복을 안 아오기 위한 대중적운동이다. 운동의 주되기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더욱 공고히 다져 조 애국애족운동의 종합적정인 지부들을 전성기의 새 모습 으로 꾸려나갔었다.

지금 총련일꾼들은 주 제 100년인 올해를 애국애족 운동사에 영한할 력사적인 해 로 보내일 한 마음으로 이 운동 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총련도 또한 아다찌지부와 호응한 다고 기대하며, 휴가도 샅보

로지부, 오사까부 히가시오사 까미나미지부들이 그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 지부들에서는 지부위원장 과 상임위원들이 조국의 현실 태와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료해분석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활동기 람투하여 실천에 옮기고있다. 이 지부들뿐아니라 일본 각지 의 모든 총련지부들에서 애국 애족의 전통과 단결의 열, 만 단을 뒹고있는 강한 선진성과 풍부한 사업경험, 축적된 토대와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90일운 동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총련의 교육기관들과 각 단 일단체들에서도 혁신이 일어나 고있다.

본사기자 라 설 하

## 반역정도로 위기에 처한 보수집권세력

얼마전에 있는 《제보총 선지》에서 대담을 담담한 《한나라당》의 집안들이 말 이 아니다. 패배의 후과가 심각하게때문이다.

당상층부가 총사퇴하기로 하고 정외대 비서실장 등 현 집권자의 참모진영도 사 실상 사임을 표명한 상태다. 완전히 등을 돌린 민심 을 회유하기 위해 당국자가 개각술에 나섰지만 그것 역시 외면당하고있다. 남조선 여론은 《선거》패배보다 다 늘상 벌려놓은 것은 개 각술은 《그 밤에 그 나 물식의 팽질처럼》으로서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힐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야

## 《선거》패배의 심각한 후유증

유소조하고있다.

《천당아래 분당》에서 무릎꿇은 집권여당, 《전 통적주세 지역들에서 추풍 락엽처럼 날아떨어진 여 당 후보들》, 《민심이 《한 나라당》에 회초리를 들었 다》, 《무능과 무기력, 무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령정 한 평가》, 《청와대와 《한 나라당》은 이레도 민심을 외면할려나.》...

《선거》이후 도처에서 쏜 아저나오는 이런 여론의 규 모와 조소의 목소리에 남조선 집권세력은 얼이 나갈 지경이다.

《선거》패배의 책임을 들 러서고 《한나라당》내부에 서는 매일같이 싸움질에 빠져들었다. 며칠전 그 무슨 《당태 신방안》이라는것을 론하 는 《한나라당》의 의원도 이 일 있었는데 시작부터 《선거》패배의 책임을 서로 넘겨쳐주는 친리제와 친박 계사이에 싸움이 터졌다. 이것을 예견해서인지 친리 계의 거물들인 남조선당국 자의 형 리상득과 리제오는 이에 모임에 머리를 조아 밀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이번 《선거》승리에 기세 가 오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진보정치대통령파 진보세력들을 추장하며 야당세력의 통합과 연대면 향을 적극 추진하고있는중 인데 그와는 반대로 《한 나라당》내부는 이처럼 판장 판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 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책 일만들 운운하며 다음기 《국회선거》에서 자기만 살 아남았다는 리기적인 행동 만 하는자들이 득실거리는 《한나라당》에는 더이상 미레가 없다고 평하고 있다. 오죽하였으면 《한나 라당》의 한 인물이 당도 《정부》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다 망한다고 아우성 을 쳤는가.

민중을 배반하고 민심을 거역하는 반역당, 정치간 향상책비로 찍은 동명당이다. 이것은 남조선정부가 《천안》호의 진실을 알리려는 미명하 에 외국인들에게 보여준것으로 사 사회일반에 공개되었보다 훨씬 선명하다고 한다.

그런데 남조선의 한 인터넷 가입자가 함선총동원력 2분미 지난 후의 이 동명당자를 분석하고 《천안》호침몰의 원 인은 함선총동원력 2분미 지 않을때에 돌이켜보면 《정권》을 되찾아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사민 당들이 다시 총표를 들고 반민 민, 반민주적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반《정부》투쟁에 나설것을 강조

남조선 《CBS》방송에 의 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남조 세의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소 고기수입정책을 반대하는 초 불투성이 일어날 때로부터 3 일은 되는것과 관련하여 2일 서을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 지었다. 단체들은 친 《정권》이 3년전 시민들의 초불투쟁 에 직접하여 《사과》와 《반 송》을 거둬들였지만 오늘에 와서는 오히려 더 포악해지고

민중을 억압하고있다고 비난 하였다. 특히 이번 보수정착 을 통해 민심이 어떠한가보 는그리고 한나라당의 반성도 없 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권》은 되찾아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사민 당들이 다시 총표를 들고 반민 민, 반민주적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숨길수 없는 모략극의 진상

최근 남조선에서 《천안》호 침몰원인이 《어뢰공격》이 아니라는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또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천안》호의 침몰과정을 보여주는 열영 상판총동원력 찍은 동영상이다. 이것은 남조선정부가 《천안》호의 진실을 알리려는 미명하 에 외국인들에게 보여준것으로 사 사회일반에 공개되었보다 훨씬 선명하다고 한다.

그런데 남조선의 한 인터넷 가입자가 함선총동원력 2분미 지 않을때에 돌이켜보면 《정권》을 되찾아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사민 당들이 다시 총표를 들고 반민 민, 반민주적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허 영 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 주민주》는 우에 불복 올라온 마스트를 거두고있고 거대한 적과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있는 물체는 잠수함밖에 없다고 하면서 《천안》호가 침몰과정의 충격 들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지금껏 《천안》호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도 불구하고 합 선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 하여 침몰되었다고 생역자를 부리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 의 이른바 사건 《조사결과》라 는것이 동쪽을 모호하고 북남 판계를 전쟁경계로 몰아가기 위해 꾸며낸 유전 남조선은 라는 사실이 계속 새겨 밝혀 지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3월 남조선의 전 《민중합동 조사단》은 민간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은 사건 《조사결과》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해주는 3장 의 사진을 공개하였다. 그것은 어뢰추진체에 붙어있는 어린 《붉은명개》의 사진이었다. 이 에 대해 신상철은 《조선동해 에서만 살고있는 《붉은명개》가 어뢰추진체에 부착되었다

는것은 이 어뢰추진체가 《천 안》호침몰원인이 무관했다는 것 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폭 로하였다. 그에 이어 이번 《천안》호침몰원인이 거대한 잠수함파의 충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천안》호가 당시 군사훈련을 위해 사건수역에서 기동하던 미 군잠수함과의 충돌로 침몰하였 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것이 사건과정을 담은 동영상 자료의 새로운 분석으로 한층 더 신빙성을 얻게 된것이다.

사실상의 승복은 감할수 없 고 순바닥으로 하늘의 별을 가 리울수 없듯이 정의와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감할수 없는 법이다. 함선총동원력 《북 의 어뢰공격》에 의했기이라는 그 무슨 《조사결과》라는것이 완전히 허위와 남조선 일판된 불순하리 그것이 모략이라는 것은 머잖아 명백하다.

남조선집권세력이 함선침몰 사건을 결코 아무리 대결소통 을 할기를 부리여도 그것이 내 외의 비난과 조소, 항의규탄만 을 더욱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본사기자 복 은 희

## 로동자들의 투쟁에 합세할것을 주장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 변인이 5. 1절에 즈음 하여 1일 논평을 발표하 였다.

론평은 이날 민주로동당 《한국로동》이 각지에서 가 폭동, 민생파란을 몰아온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 한 투쟁을 전개하는데 대 힘입을 것을 촉구하였다.

## 두 로동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지는 것은 현 《정 권》하에서 로동자들의 삶 이 더이상 물러설수 없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있다

두 로동의 목소리가 하나 로 울려 퍼지는것은 현 《정 권》하에서 로동자들의 삶 이 더이상 물러설수 없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있다

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론 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민주로동당이 최 저임금과 실업, 열악한 로 동조건으로 신음하는 로동

## 자들의 고통을 팔장내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안아 주기 위해 현 《정권》실판 투쟁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들의 고통을 팔장내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안아 주기 위해 현 《정권》실판 투쟁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면하여 로조법전면개 정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 에 합세할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로동자들

남조선 《CBS》방송에 의 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남조 세의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소 고기수입정책을 반대하는 초 불투성이 일어날 때로부터 3 일은 되는것과 관련하여 2일 서을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 지었다. 단체들은 친 《정권》이 3년전 시민들의 초불투쟁 에 직접하여 《사과》와 《반 송》을 거둬들였지만 오늘에 와서는 오히려 더 포악해지고

## 파쇼약법에 의한 피해자 급격히 증가

이전 《정권》시기 합법적으 로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조국 통일법민족친화 남측본부, 남 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진보련대 성원들이 현 《정권》이 들어 온 이후 《보안법》위반으로 립진, 구속되었다.

그에 의하면 현 《정권》하 에서 《보안법》에 의한 립진 지수가 선임 《정부》시기보다 3. 5배 늘어났다.

## 민가협심수후원회는 이러 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나 라당》이 제출한 《리직단체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악법 에 반대한다.

민가협심수후원회는 이러 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나 라당》이 제출한 《리직단체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악법 에 반대한다.

또한 《보안법》위반수사 를 명목으로 감행된 불법도청건수 는 선임 《정권》시기보다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밝혀준 태양의 빛발

태양열과 위대한 평등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쪽에 즈음하여 네발, 단마르크, 벨라루시에서는 집회와, 인디아에서는 집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설모임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등도자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장에는 네발공산당(파트스-네인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기념 네발공산당, 단마르크공산당, 단마르크공산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마르크준비위원회,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협회, 벨라루시 《혁명과 연방공산당을 위하여》 전국사회위원회, 김일성명칭 전국벨라루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우호회,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인도네시아 라비트루 바흐레라 브라파라피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주체사상탑》이 상영되었다. 네발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생애

는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바쳐진 고귀한 희생이라고 격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지나신 뜨거운 인간애와 감화력, 신건정령은 그이를 만나보신 외국인들의 반향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주석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쌓으신 고귀한 업적으로 하여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마르크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현대조선의 력사는 김일성주석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세계 진보적인류들은 그이를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정치가, 위대한 반제투사로 꼽았으며 흠모하고 있다. 조선에서 주석의 사상과 업적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 있다.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조국인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도달을 하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선군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에게 가장 열렬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계자화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인 중의 위인이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실천에 구현하시어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제도를 조선땅에 일떠세우셨으며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잠시도 휴식도 없이 정력적으로 사임하시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그이를 인민의 수령, 영원한 주석으로 꼽았으며 높이 추대하고 있다. 네발, 단마르크, 벨라루시, 인디아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위대한 평등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올리는 전문과 축전이 제법되었습니다.

\* \* \*

태양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통신이 기념보도를 하였다. 로씨야신문 《빠트리오트》 제 14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 절세위인들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 김일성종합대학 시절의 정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웅근 세번에 투정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지원의 사상과 두자루의 권총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시고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어 《E. C》를 결성하시였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

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주체사상은 창시되어 오날까지 수십년세월 자기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변함없이 과시하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정당성은 《주체》라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인민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고있는 조선에서는 인민이 자주적권리를 행사하면서 평등한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태양의 빛발은 평화와 민주주의, 진보와 자주를 갈망하는 세계인민들의 열정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 네발신문 《저너 히트》 3월 30일 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을 모시고 《서방인사들이 본 김일성주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전기간 7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을 만나주신데 대하여, 그의 고매한 품격이 외국인의 벗들이 감탄을 금치 못해한데 대하여 사실자료를 들어 소개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지원의 사상과 두자루의 권총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시고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어 《E. C》를 결성하시였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

주석》, 《김일성동지의 생애와 업적》,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들에서 이 땅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펼쳐주신 것에 대한 수평님의 독창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평등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 단결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레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내이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타이신문 《성상일보》 4월 7일 부는 정애하는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그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를 전하는 글을, 애절신문 《알 마씨야》 4월 9일 부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사론적적과 평등의 혁명성을 찬양하는 글을 실었다. 캄보디아의 아카메통신은 4월 7일 《인간사랑의 정치가》라는 제목으로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현실로 펼쳐놓으신분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주체사상을 정치철학으로 삼으시고 그를 철저히 구현하신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정세를 어디로 끌고가려 하는가

최근 미국이 남조선피괴들과 국방, 외교차관 보급회의를 벌여놓았다.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와 피괴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미국남조선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그무슨 《군사안보대비태세》조치를 점검평가하고 앞으로는 《대북억제체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 회의가 남조선에 미군을 장기주둔시키고 피괴들을 반통일국대결로 더욱 부추기려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미국이 남조선피괴들과 입을 모아 합창한 이른바 《안보》와 《억제력》타령은 북침전쟁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꾀병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특대형모략극을 조작해낸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은 그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소동을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의 포성이 그렇게 없이 울려나왔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가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표시한것은 우연치않다. 사실상 지난해에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에 이르지 않았던것은 우리의 인내성있는 평화애호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조선반도정세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은 집요하게 긴장격화와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피괴들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고있다. 그들은 정초부터 미국과 야합하여 극히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있다. 집권초기부터 민족공조를 부정하여온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작당하여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공조방안을 마련한다. 어찌나 하면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한사이에 대화와 협력사업을 일체 중단하고 북남관계를 완전폐쇄상태에 몰아넣었다. 군사분계선 남쪽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심리도발적인 열기를 무고 벌여지고 그 무슨 《군번사태》나발들이 거침없이 울려나왔다. 이것은 미국산전의 조종과 부추임을 받는 남조선호전파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준다. 적들의 반공화국당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리성을 잃고 몸인지불인지 모르고 헤매이는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기고 그들과 맞장구를 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에서 실제적 군사공수권을 행사하고있는 미국이 조선반도정세완화를 추구한다면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군사행동을 자제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립장이 있지 않다. 때문에 미국은 계속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당동을 부리고있다. 미국이 그 누구의 《국지전도발》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오는 7월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투입하여 남조선피괴들과 지난해 《천안》호 침몰사건이 발생한 때와 같은 지역인 조선서해의 백령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릴것을 획책하고있는것은 그 단결시례이다. 이것은 현 사태를 보다 엄중한 무장충돌과 전쟁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계획적이고 로골적인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이다.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떠돌아다니는 《대북억제력제고》란 반공화국군사적대결과 긴장격화, 북침전쟁행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공연한 오진적목언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한마디로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이번 모의는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시시각각 전쟁발발의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있는 첨예한 현 사태는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적들의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참용성에도 한계가 있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피괴들과 공모하여 감히 우리에게 모험적인 도발을 걸어온다면 사태는 예측할수 없는 파국적인 결과를 빚어내게 될것이다. 미국은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리 현 도

다. 3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수리에서 올해 1.4분기에 3 482만 8 000bbl의 원유와 26억 6 400만 m³의 가스를 생산하였다. 특히 이 기간 하루평균 원유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7 0bbl 더 늘었다. 【조선중앙통신】

## 길이 빛내여야 할 불멸의 업적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군회의의 결정을 지지하여 폴로비아경제주체사상연구소가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인류사적대사로 성대히 기념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군회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된다. 주석께서 창시하

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이야말로 조신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이라는것을 우리는 재확인한다. 우리는 주석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통하여 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다.

## 적들의 제재책동이 실패하였다고 언명

이란공업평업장이 3일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적들의 제재책동이 실패하였다고 언명하였다. 이란인민은 단결된 힘으로 적들의 반이란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

팔레스타인민족당국 종교문제상이 3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최근 유대인 정착민들이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시무근에 있는 한 사원에 불을 지르는 만사를

##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꾸바에서 1.4분기에 남세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대되었다. 나라에서는 남세증자문제를 자체로 전부 해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베니수엘라에서

베니수엘라에서 비공정산사업의 한 고리로 설립건설에 힘을 쏟고있다. 5일 이 나라 대통령은 정부가 가까운 기간에 가난한 주민들을 위한 2만 3 000여대의 살림집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여기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판매면적을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카두나주에서 2 000ha에 달하는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공사 가 진행되었다. 주에서는 앞으로 판매면적을 또 1만 2 000ha 확장하게 된다. 한편 나이지리아의 카두나주에서 수력발

## 핀란드조선협회 년차총회 진행

핀란드조선협회 년차총회가 4월 28일 헬싱키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협회의 지난해 활동정황이 총회되고 올해사업방향이 토의되었다.

## 신형전투기 위성발사

로씨야에서 4일 이종용도위성 《메리디안》을 우주에 좌출하여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블레세프우주발사장에서 《소유즈-2.1a》운반로켓에 의해 발사되었다. 로씨야우주군 대변인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의 그릇된 행위를 단죄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른바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종교문제를 가지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데 대해 비난하였다. 그는 중국정부가 신앙에 따라 공민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있으며 중국인민들은 법에 의거하여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있다고 말하였다.

## 그릇된 행위를 단죄

그는 미국의 이른바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존중하며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내정에 간섭하는것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판매면적을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카두나주에서 2 000ha에 달하는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공사 가 진행되었다. 주에서는 앞으로 판매면적을 또 1만 2 000ha 확장하게 된다. 한편 나이지리아의 카두나주에서 수력발

## 로씨야에서 시험비행

로씨야의 품소볼스크-나-아무레시의 한 비행장에서 3일 실험다목적전투기 《Cy-35C》의 첫 시험비행이 진행되었다. 고도로 현대화된 전투기는 같은 급의 전투기들보다 우월한 5세대기술체계를 갖추고있다. 실험전투기는 몇 차례의 시험비행을 더 거친 후 국방성에 납입되게 된다 한다.

## 중국기행

발전과정을 년대별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중국국가관은 세 세계 발전 추세에 맞게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현대적으로 꾸러진 중국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다. 이곳 참관을 통하여 우리는 중국의 어제와 오늘의 발전면모 그리고 해외에 대하여 알수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중국사람들은 조선동지들을 만나니 대단히 반갑다고 하면서 기쁨과 열정에 넘쳐 친근하게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참관한 동방명주탑은 이름그대로 유방한 건축물이었다. 우리는 탑의 전망대에 올라 상해시를 부감하였다. 안내원이 상해시의 건축물들은 같은 형식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정말 들리만 바그대되었다. 상해도시계획관람을 돌아 볼때 안내원은 우리에게 지난 15년간 상해시의 면모가 물라르게 달라졌다고, 특히 포동지구에는 빠른 속도로 개변되고 있다고, 앞으로 상해시가 더욱 번모될것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 잇을 수 없는 친근한 벗들속에서

우리는 상해시를 참관하면서 중국공산당의 평등함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는것을 직감하였다.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한 우리는 려장을 풀기 바쁘게 교외에 있는 한촌하마를 찾았다. 우리가 그곳으로 뺄수록 타고 달릴 때였다. 갑자기 무엇인가 차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웬일인가 하여 차장밖을 내다보니 길옆의 밭에 있는 판수설비가 물소나기를 퍼붓는것이였다. 알고보니 판수시설을 농작물의 생육조건에 맞게 가동시키고있었다. 이담타고 꾸러진 한촌하마에서 우리는 어느 한 살림집에 들렀다. 로인내이가 우리를 따듯이 맞이하였다. 우리가 살림형편에 대해 묻자 로인부부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는것은 중국공산당의 덕이다라고 스스로 겸없이 말하는것이였다. 로인내이는 조선사람들을 만나니 기쁘다고 하면서 중국

## 과 조신의 공통점에 대하여

다시말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는 두 나라 민족들의 활동에 의해 인민들이 복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당을 잘 만난 행운에 대하여 궁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친근한 중국동지들과 함께 베이징의 친안문광장, 인민영웅기념비와 고궁, 이화원도 돌아보았다. 상해시와 베이징을 참관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민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친선의 감정을 특히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들의 호모심을 이 남달리 느끼는것을 깊이 느꼈다. 상해시의 중국국가관을 참관할 때였다. 참관자들도 불비는 중국국가관에서는 우리는 섬서성에서 온 왕가성을 가진 불일성 좋은 한 로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우리의 앞가슴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회장을 바라보면서 《조선젊은이들이 구명》》라고 서투를 매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조선의 김일성주석은 모택동주석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요. 조선은 위대한 평등도자를 모시어 존엄있는 나라입니다.》

## 말리의 건축물

말리에서 건축된 건물들. 【조선중앙통신】

## 대륙과 지역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호소

가봉대통령 알리 봉고 옹이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이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단결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아프리카나라들이 기후변화문제에서 자기 나라의 리익보다 대륙전반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고 강조하였다. 대륙나라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새로운 협정이 채택되도록 한국사리를 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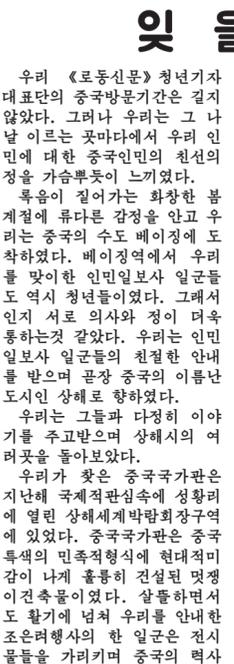
## 기후변화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케니아수상 리일라 오밍 가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이 기후변화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 및 에네르기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11월 남아프리카의 데번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통과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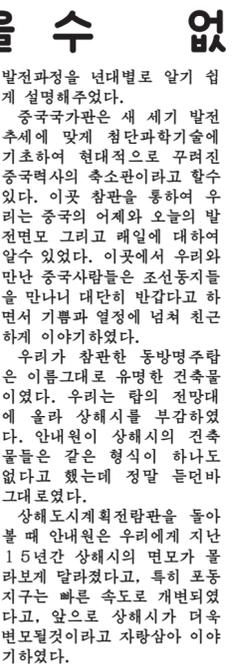
##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

미국인들속에서 당국의 부당한 정책으로 자기들의 생활형편이 계속 악화되고있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위스톤 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응답자들이 실업위기가 더욱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약 70%는 현재 실업상태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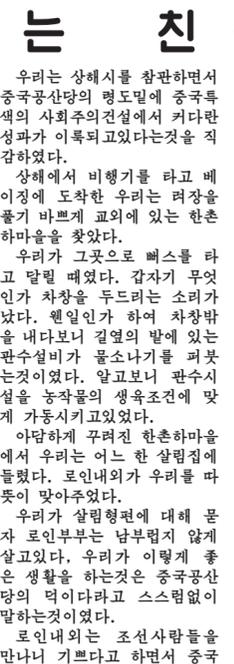
## 중국 베이징시 한촌하마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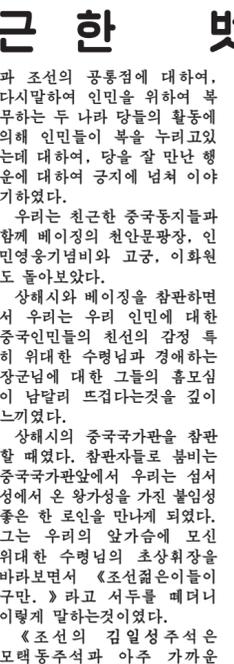
## 중국 베이징시 한촌하마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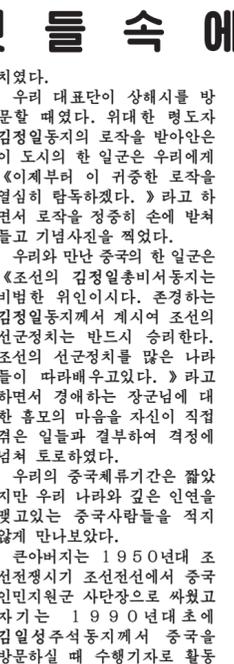
## 중국 베이징시 한촌하마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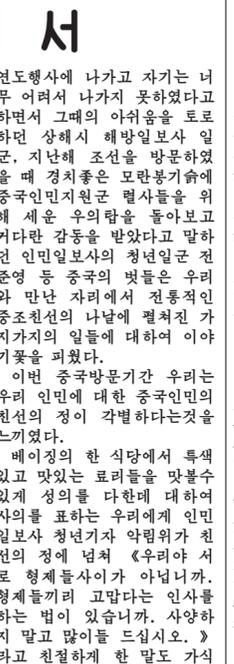
## 중국 베이징시 한촌하마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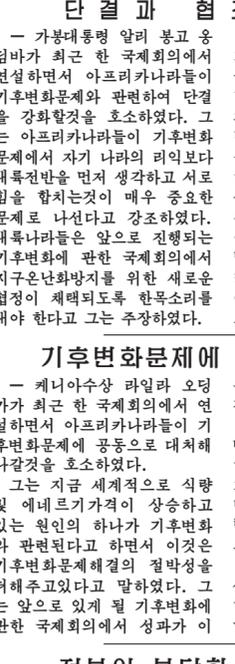
## 중국 베이징시 한촌하마의 일부



## 중국 베이징시 한촌하마의 일부



## 중국 베이징시 한촌하마의 일부



## 중국 베이징시 한촌하마의 일부

